

광주시교육청, '마을샘 공유꾸러미 프로젝트' 추진

놀이 물품·시설 공유 등 일컫는 공유꾸러미 제공 공유꾸러미 관련학교와 협력 공유 놀이 활동 촉진 공유문화 확산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광주시교육청이 '마을샘 공유꾸러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마을샘 공유꾸러미 프로젝트'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인근 마을의 어린이·청소년과 마을주민에게 놀이 물품이나 시설 공유 등을 일컫는 공유꾸러미 제공과 해당 공유꾸러미와 관련된 마을샘(학교와 협력해서 공유 놀이 활동을 촉진하는 마을활동가)의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공유문화 확산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마을샘 공유꾸러미 프로젝트'는 비대면 시대에 놀이가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에게 있어

마을의 소규모 그룹별 놀이를 지원하는 작지만 소중한 놀이 프로그램이다. 시교육청은 '마을샘 공유꾸러미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인근 마을의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 시설과 손잡고 놀이·체육 물품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꾸러미를 지원하며 주말 또는 방과 후 시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체육 물품 등의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을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했다. 공유꾸러미를 활용한 방과 후 활동을 통해 마을의 교육력을 높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샘 공유꾸러미 프로젝트'는 '광주공유센터'와 '세대소통 놀이문화공동체' 등과 같은 민간 협력단체가 있어 실현 가능했다. 민간 협력단체는 학교와 협력해 공유활동을 촉진하는 마을샘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놀이 수업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공유 및 놀이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운영된 신용초 공유꾸러미는 놀이물품 중심으로 공유꾸러미가 구성됐다. 학교 내 운동장과 가까운 장소에 공유꾸러미를 비치했고, 마을샘의 지도를 받아 놀이와 공유방법을 익히고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또 각화중 공유꾸러미는 중학생의 취향에 맞춰 주로 체육물품 중심으로 공유꾸러미가 구성됐다. 각화중 공유꾸러미를 기획한 유태미 교사는 "공유꾸러미 이용에 대한 책임감도 동시에 심어주기 위해서 별도의 동아리를 공개 모집했다"며 "시작은 소수로 출발했지만 새



학기에는 더 많은 학생이 동아리에 참가해 자율적인 공유꾸러미를 활용하고 관리하면서 공유문화의 가치를 경험적으로 익히고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안석 시민참여담당관은 "새해에는

놀이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공유꾸러미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놀이 자원'이 되도록 '마을샘 공유꾸러미 프로젝트'를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력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담양중 학생자치회, 랜선 송죽제 개최 비대면 학교 축제로 e-스포츠·노래경연 LIVE 중계

담양중학교(교장 윤기정)는 지난해 12월 31일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비대면 학교 축제 랜선 송죽제를 치렀다. 랜선 송죽제는 개막식, e-스포츠 준결승과 결승, 아랑고고장구 축하 공연, 행운권 추첨, 청울림의 난타 축하공연, 랜선 노래방으로 구성되었는데 전 과정이 유튜브 Live Studio를 통해 교실에 실시간 중계되었고, 학생들은 마스크,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시청하면서 순간순간 환성과 탄식을 자아냈다. 학생회장 정상훈(3학년)은 "해마다 이어진 송죽제의 전통이 끊길뻔한 위기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랜선 송죽제를 기획했다.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휴식공간인 PC방과 코인 노래방인데 코로나로 출입이 제한된 상황이라 거의 만장일치로 e-스포츠와 노래방이 축제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다. e-스포츠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리그 오브 레전드' 단일 종목으로 결정하였고 그간 예선을 통해 학년별 우

승팀을 뽑아 오는 최종 우승팀을 가르게 되었고 노래는 학급별 대표 9팀이 경연을 펼치게 되었다. 노래방 장비 대여와 랜선 중계 등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얻었다"고 축제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e-스포츠 축하공연은 요즘 유튜브에서 장구계의 아이돌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본교 3학년 한태현군의 아랑고고장구 공연과 올해 전국대회 2연패에 빛나는 담양중의 자랑 청울림의 난타 축하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끌어 올렸고, 행운권 추첨은 현장 추첨 못지 않게 학생들의 호응이 컸다.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조슬기는 "처음 해보는 랜선 축제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다 보니 어설픈 점도 있었다. 하지만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종목을 결정하고 공연팀 결정해서 축제를 이끌어 간게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진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바리스타 자격증 5명 취득

바리스타 자격증·핸드드립 자격증 취득 통한 직업 역량 향상 목적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포)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5명이 바리스타 자격시험(4명) 및 핸드드립 자격시험(6명)을 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진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26일~12월 17일까지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 학생을 대상

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바리스타 자격증 및 핸드드립 자격증 취득을 통한 직업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진도실업고등학교 이수연 담임교사는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자격증 취득을 통해 진로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정말 실제적이고 유익한 활동이라고 생각 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진도교육지원청 이문포 교육장은 "이번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데 의미 있는 활동



이 되길 바라며,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사회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활동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사관학교 구실 '톡톡'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취업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사관학교 구실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 등 주요 기관 및 기업에 전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212명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의 경우 지역인재 국가직 13명, 전라남도 지방직 20명, 전라남도교육청 지방직 10명, 광주광역시 지방직 1명, 부사관 69

명 등 113명이 합격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에 30명이 취업했다. 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에 8명, 대기업은 삼성전자, GS칼텍스, 포스코건설 등에 61명이 현재까지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작지만 강한 중견·중소기업에도 다수가 취업에 성공했다. 향후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관 및 기업이 다수 있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는 공무원 등 우수 취업처에 합격을 목표로 특성

화고/마이스터고에 진학해 꿈을 이룬 학생도 있어,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안겨 준다. 이현희 미래인재과장은 "주요 기관 및 기업에 합격한 학생이 있기까지는 일선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취업지도를 해주신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다."면서 "앞으로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학생들이 우수 취업처에 합격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